

사회학자의 書架

李效再 이화여대 교수



한국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대모로 꼽히는 이효재교수(65)의 서재는 철저하게 공개적이다. 그림직한 당호도, 또 그 흔한 편액 하나도 걸려 있지 않은 그의 서재는, 서재라는 말이 풍기기 십상인 어떤 개인적인 내밀함이 전혀 없다. 80년대 초 그가 이른바 해직교수였을 당시, 제자들과 후학들이 개인연구실 겸해서 마련해준 '여성한국사회연구회'의 방 한칸이 곧 그의 서재이자 연구회의 개가식 자료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.

엄밀하게 말하자면 굳이 서재랄 것도 없는 서가들뿐인 이 방에서 그는 얼마전 「한국의 여성운동」을 탈고했다. 요즘은 올해를 끝으로 맞게 되는 정년 이후를 설계하고 있다. “정년이라고 해서 딱이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고 그저 늘 하던 대로 읽고 쓰겠다”고 말하면서도 가칭 ‘한국가족사연구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.

그런 점에서 그는 제자들이 정년기념 논문집의 봉정을 계획할 만큼 ‘노교수’이지만, 그의 학문은 여전히 개척적인, 그래서 ‘제1세대’란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노교수이기도 하다.

〈강철주 기자〉

사진 · 구분창



